

마하티르와 김대중의 동아시아지역협력 구상 비교 연구

이 재 현*

I. 서론

1997년 아시아를 휩쓴 경제위기를 전후로 시작된 동아시아지역의 지역협력과 통합의 움직임은 지난 2005년 1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를 개최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왔다. 이런 빠른 발전과정은 아마도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주로 관주도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결정적인 추동력으로 작용해왔던 것은 몇몇 주요 국가 정부의 움직임이었고, 그 이면에는 각 국가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과 비전의 제시가 크게 작용했다. 개별국가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전체로도 몇몇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결단과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위한 비전은 동아시아 지역통합 전체를 이끌고 나갈만한 큰 힘을 발휘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두 정치 지도자는 바로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모하마드(Mahathir Mohamad) 전 총리와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우선 그에 대한 다채로운 평가에도 불구하고 마하티르 전 총리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관한 한 선구자적 인물이라는 점

* 연세대학교.

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미 1990년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동아시아경제그룹(EAEG, East Asia Economic Group)을 제안하면서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동아시아라는 범주를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 바로 마하티르 전 총리이다.¹⁾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아세안+3(ASEAN+3) 비공식 정상회의가 최초로 실현된 이후 그의 대통령 임기동안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무엇보다도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East Asia Vision Group),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East Asia Study Group) 등을 정상회의에서 제안하여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고 이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했던 선구적 역할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많은 연구들이 이 두 사람이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발전과정에서 했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그들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전략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와 그들의 비전에 대한 성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²⁾ 이런 기본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더 나아가서 이 두 사람이 가졌던 동아시아 지역주의

1) 흔히 동아시아 지역협력 내지는 통합에 관해서 이야기 할 때 “동아시아”의 범주는 동남아와 동북아를 합한 실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동아시아에 관한 연구들에서 지나친 동북아중심주의 즉, 동아시아의 중요한 한 축이 되는 동남아를 너무 경시하는 경향이거나 더 나아가 동아시아를 동북아시아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백영서 등이 지은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에서는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의 능동적인 주체는 오직 중국과 일본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한국은 주변적 위치에 머물러 있고, 동남아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동남아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있어서 잘해야 영향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대상이고, 그보다 나쁜 경우에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에 불과하다 (백영서 외 2005를 볼 것).

2) 이런 연구 경향의 한 예외는 Baogang He(2004)의 연구인데 그는 특별히 지역주의의 지도적 인물의 비전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지도자들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아시아 지역주의의 비전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특히 그는 “지역주의 아이디어들은 방향을 설정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지역 공동체를 조직하고 창조하는데 필요한 기본 원칙을 세우는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적시하며, 지역주의 비전과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마하티르의 지역주의 비전은 다루고 있는데 반해서 김대중의 지역주의 비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에 관한 비전이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가에 관한 의미있는 비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런 연구의 축적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방향성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도 부재한 상태이다.

이 연구는 이상에서 언급한 결핍을 메우기 위한 실험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이 두 지도자가 가졌던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통합에 관한 생각을 좀 더 깊이 관찰하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마하티르 전 총리가 가졌던 비전을 그들의 발언, 연설, 글을 통해서 추적해보고 여기서 얻어진 단편들을 모아서 비전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려 한다. 조금 더 욕심을 내어 이 두 사람의 지역협력 관련 비전에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 연구의 기본 주장은 두 지도자의 지역협력에 관한 비전이 결정적으로 추동되게 된 배경, 즉 지역적 또는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마하티르의 동아시아경제그룹과 김대중의 동아시아공동체의 뒤에 숨어 있는 비전, 다시 말하면 두 지도자가 일관되게 보여 온 개인적 신념, 세계관, 이데올로기가 투영된 비전이란 면에 있어서 두 사람은 큰 차이를 보인다.³⁾ 다시 말하면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가져온 배경에서는 두 지도자가 유사하지만, 이 필요성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 신념적 배경과 만나면 서로 다른 지역주의의 성격을 가져오게 된다.

이 연구는 우선 지금까지 두 지도자가 동아시아 지역주의 발전의 과정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 발전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먼저 간략하게 검토한다. 그런 후 먼저 마하티르와 김대중의

3) 이 연구 전반에 걸쳐 언급되고 있는 마하티르와 김대중의 세계관과 정치철학은 대단히 체계적인 신념의 틀이라기보다는 그들의 과거 정치적 행적과 담론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기본적인 정치적 신념 또는 입장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주의 비전에 있어서 공통점을 당시 동아시아 지역과 개별국가
 가 처한 지역적, 국내적 위기 상황에 비추어 검토한다. 그 후 두 지도
 자가 과거로부터 일관되게 가지고 있던 신념과 세계관에 비추어 두
 지도자의 지역주의 비전의 차이점을 설명할 것이다. 물론 관련된 연
 구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의 이 연구는 아주 심층적 분석을 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
 역협력 전체를 꿰뚫어볼 수 있는 통찰력과 인식을 얻기 위해서 이
 부분에 관한 적절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여겨지며,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이후 보다 완성도 높고 심층적인 연구를 촉진하
 고 진작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이 연구의 소재와 범위에 관해 몇 가지 추가
 적인 언급이 필요하다. 우선 이 연구는 두 지도자의 지역주의 비전을
 그들의 저술과 연설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정치적인 연구에서 행위
 자의 저작이나 연설 등과 같은 자료들은 그 신빙성이 의심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의 정치적 의도를 위장하기 위한 허울 좋은 포장
 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믿을만한 자료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두 지도자의 행동과 실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 비전을 간접적으로 유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의도라
 는 측면을 중시하여 그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 나온 연설과 글들이
 그들의 비전을 보다 잘 전달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 자료들의 분석
 에 치중하고 있다. 특별히 지역주의의 미래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실제 의도를 숨기고 이를 포장해야 할 이유는 별로
 없다는 것 또한 이런 자료를 이용하는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로 이 연구에서는 두 지도자의 지역주의 비전을 형성한 개인적 신념
 에 큰 영향을 준 요인들만을 고려한다.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는 물론
 지도자의 신념만이 투영된 결과는 아니다. 국내정치, 국가적 이해관
 계,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 지역의 지역주의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두 역내 지도자들이 주장한 지역주의 비전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으므로, 이 비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국내적, 국제적 변수 외의 다른 변수들은 논외로 한다.

II.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과 마하티르, 김대중의 역할

동북아와 동남아를 아우르는 의미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최초 등장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듯이 1990년 마하티르가 동아시아경제그룹을 제안하면서 부터이다(Terada 2003: 252). 마하티르는 1990년 12월 이봉 당시 중국 총리의 말레이시아 방문에 때맞추어, 동북아의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과 당시 아세안 6개국을 하나의 공동시장으로 묶는 제안을 했다.⁴⁾ 그러나 동아시아경제그룹 제안의 운명은 그리 순탄하지 못했다. 동아시아경제그룹이 아세안 국가인 말레이시아로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사전 동의없이 제안되었다는 것 때문에 아세안 내부에서도 이 제안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었다(Vatikiotis 1991: 18). 협의와 합의(consultation and consensus)를 중시하는 아세안의 전통에 비추어 말레이시아의 이런 일방적인 제안은 너무 느닷없는 것이었다.⁵⁾ 역외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4) 지금 현재는 아세안이 10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1990년 당시에는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가 가입하기 이전의 6개국 즉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브루나이 등으로 아세안이 구성되어 있었다.

5) 아세안방식(ASEAN Way)이라고 널리 알려진 아세안 내부의 질서를 이해하는 것이 동아시아경제그룹에 관한 아세안의 반응을 이해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아세안방식은 흔히 내정불간섭, 주권존중, 협의와 협의 등의 원칙을 준수한다고 한다. 이런 원칙들은 아세안 국가들 간에 논쟁적인 이슈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게 만들고 원칙과 규칙에 의한 결정보다는 관련자들 간 비공식적 협상과 합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내는 방식을 선호하게 만들었다. 아세안 방식에 대해서는 로빈 람차란의 글 (Ramcharan 2000)을 볼 것.

특히 미국이 동아시아경제그룹 제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서 있었다. 이미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이라는 동아시아를 포함하는 장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마당에,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배타적 그룹화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것이었다. 이런 미국의 불편한 심사는 일본을 통해 아시아로 전해졌다. 동아시아경제그룹의 성공적 시작을 위해 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력을 가진 일본의 협력과 큰 역할이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마하티르의 기대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사를 반영한 일본은 이 제안에 대해서 암묵적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아세안 내부의 협의를 거쳐 이름을 동아시아경제회의(East Asia Economic Caucus)로 개칭하고, 이를 APEC 하위에 놓는 선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었지만, 마하티르의 구상은 이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었다.

비록 동아시아경제그룹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이 제안은 지금 현재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통합 관련하여 상정되는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범주를 최초로 제안한 것이라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동아시아경제그룹 제안에 등장한 국가들 중에 대만은 국가적 실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범 중국권이며, 홍콩은 이미 중국으로 반환되었기 때문에, 당시 제시되었던 5개의 동북아 국가들은 현재 아세안+3에 포함된 한국, 중국, 일본이라는 범주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 1997년을 전후로 하여 아세안+3라는 실체가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이라는 범주가 상정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1990년 마하티르의 동아시아경제그룹 제안에서 설정된 범주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아시아경제그룹과 현재의 아세안+3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 사이에 제도적 측면의 연속성은 없다고 할지라도, 동아시아를 어디까지, 어떻게 규정하는 가라는 범주화 문제에서는 동아시아경제그룹 제안이 이후 아세안+3에 준 영향은 작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아세안+3라는 제도적 틀이 마련된 것은 1997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한국, 중국, 일본의 정상이 초청되면서 이다. 이어 1998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 국가와 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의에서 비로소 아세안+3(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담 정례화가 제안되었다. 이 회의에서부터 한국을 대표한 김대중은 매우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냈다. 이 회의에서 김대중은 동아시아가 하나의 공동체로 나가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함을 역설했고, 이런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동아시아비전그룹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곧 회원국들의 즉각적 지지를 얻어, 이듬해인 1999년 서울에서 동아시아비전그룹 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1999년 필리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다시 김대중은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협력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할 동아시아연구그룹의 창설을 제안했으며, 이 제안 역시 참석국가 정상들의 지지를 얻어 곧 그룹이 결성되고 활동에 들어갔다. 2001년 열린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비전그룹이 제출한 보고서가 정상들에 의해서 채택이 되고, 2002년 캄보디아 회의에서는 동아시아연구그룹의 보고서가 역시 채택되어 동아시아의 통합과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26개 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천단계에 들어섰다.⁶⁾ 또 김대중은 2001년 브루나이에서 열린 정상회의 자리에서 동아시아 포럼(EAF, East Asia Forum), 동아시아 정상회의, 그리고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East Asia Free Trade Area)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이런 김대중의 제안과 노력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동아시아비전그룹은 처음으로 동

6) 아세안+3의 26개 협력사업은 9개의 중장기 사업과 17개의 단기사업으로 구분된다. 몇 개의 사업들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들은 추진의지, 재원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2006년 현재 이 사업들을 정리, 통합하여 재그룹화(regrouping)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시아연구그룹 최종보고서를 볼 것(EASG 2002).

아시아공동체(EAC, East Asia Community)를 제안하고 그 비전을 평화(Peace), 번영(Prosperity), 진보(Progress)라는 세 단어로 압축하는 보고서를 아세안+3 정상회의에 제출했다. 여기서 제시된 동아시아공동체에 관한 비전은 이후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통합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guideline) 구실을 했다. 이어 동아시아비전그룹의 비전과 제안 사항을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동아시아연구그룹은 7개 단기사업과 9개의 중장기사업을 제안했다. 이 사업들은 곧 채택되어 주도국가(prime mover)를 정한 후 실천에 들어갔다. 동아시아연구그룹 보고서가 제출된 제 6차 캄보디아 회의 이후 아세안+3 하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2002년 서울에서 열린 제 1차 동아시아포럼을 포함하여 이 26개 사업의 실천을 중심으로 이행되었다. 2004년에는 아세안+3 국가들이 전격적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를 조기 개최하는데 합의했다.⁷⁾ 이 동아시아정상회의는 동아시아비전그룹에서 제안되고 다시 동아시아연구그룹에서 제시한 중장기사업 9개에 포함된 것으로 아세안+3을 발전시켜 동아시아공동체로 가는 발전적 중간단계로 제시된 것이다.

7) 동아시아비전그룹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를 제안했을 때는 이것이 동아시아 공동체로 가는 아주 중요한 도약이 될 것으로 상정되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이 어느 정도 진행된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적극적 주도로 인해 2005년에 동아시아정상회의가 조기 개최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조기 개최에도 불구하고 최초 동아시아정상회의가 동아시아공동체로 가는 중요한 도약이 될 것이라는 평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조기 개최의 대가로 일부 국가들이 주장한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비 아세안+3 국가들이 전격적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의 포함에 따라서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성격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정체성에 의문이 생겨났다. 이와 관련해서는 배공찬 2005를 볼 것.

Ⅲ. 동아시아 지역적 범주와 위기에 의해 촉발된 지역협력

마하티르와 비교하여 김대중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비전은 공통되는 요소와 차별되는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협력 비전에 있어서 김대중과 마하티르의 첫 번째 공통점은 “동아시아”의 지리적 범주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지리적 범주의 일치하는 현재의 아세안+3체제와 마하티르가 제안한 동아시아경제그룹 사이의 연속성을 제공해주며, 두 체제 또는 지역협력의 구도를 비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1997년부터 시작된 아세안+3 지역협력 체제는 마하티르의 “동아시아”라는 지역범주를 승계했다. 아세안+3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김대중은 기존에 마하티르의 동아시아 경제그룹에서 제시된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범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다. 김대중은 2002년 마하티르 총리의 방한 때 한 연설을 통해서 현재의 동아시아 협력이 마하티르의 미래를 내다본 예측 때문에 가능했다고 언급하여 동아시아경제그룹과 현재의 동아시아협력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김대중 2002). 마하티르 역시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2006년에 쓴 한 기고문에서 마하티르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Mahathir 2006: 14).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아세안의 대화상대로서 동북아 3개국에 아세안과 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통령은 동아시아 그룹핑(grouping)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모임을 ‘아세안+3’라고 불렀다. 이는 사실상 동아시아경제그룹의 부활이었다”.

두 지도자의 비전과 관련하여 보다 더 상세히 설명되어야 할 부분은 왜 이 두 지도자가 지역협력을 적극 옹호하는 지역 지도자로 부상했는가라는 점이다. 두 지도자에게 있어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강력한 옹호자가 된 이유에는 모두 특정한 국내적, 그리고 지역적 위기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국가 간의 협력과 통합은 외부로부터의 공

통된 위협, 개별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이슈의 발생 등에 의해 촉발되고 활성화 된다는 홀스티(Holsti 1995: 362-363)의 주장이 동아시아에서도 입증되는 셈이다. 마하티르의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한 목적이 지속적인 경제성장 이었다면, 김대중에게서도 유사하게 “위기극복을 위한 전략으로서의 지역주의”의 모습이 읽히고, 이 위기극복이란 다음 아닌 1997-98년 아시아를 강타한 경제위기였다.

우선 마하티르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비전은 동아시아경제그룹 제안이 나온 시점의 국제정치경제적 상황과 당시 말레이시아 경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으로 설명될 수 있다. 알라가파(Alagappa 1995: 41-43)의 지적처럼 몇몇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등과 같은 실적에 의한 정통성(legitimacy by performance)은 많은 정치지도자들에 의해서 정통성의 확보와 보완을 위해서 채용되어 왔다. 마하티르도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의 상당부분을 자신의 통치기간 이룬 말레이시아의 경제적 성장에서 찾고 있다.⁸⁾ 따라서 말레이시아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지켜낸다는 것은 마하티르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1980년대 이후 말레이시아 경제성장을 지탱해 온 것은 대외지향적 수출전략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수출이 1990년대 말레이시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단편적으로 1994년 통계를 보면 말레이시아의 무역의존도는 159%에 달했다.⁹⁾ 주식, 고무, 팜오일 등 원자재와

8) 말레이시아의 정당들, 특히 집권 암노(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또는 UMNO)는 전통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말레이 민족주의에서 찾는다. 주요 종족(말레이, 화교, 인도인)의 경쟁 속에서 이런 종족적 정체성과 이익을 담보하는 민족주의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 정당성의 기반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특히 마하티르는 재임초기부터 말레이 민족주의와 함께 경제성장에 강조점을 두면서 말레이시아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자신의 중요한 정치적 정통성의 기반으로 새로 채용했다.

9) 한국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통계정보시스템(<http://kosis.nso.go.kr/>)의 국제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4년 무역의존도 통계가 있는 79개 국가 중에서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무역의존도를 보였다.

1차 상품의 수출은 물론이고 1980년대부터 본격화 된 제조업 수출을 포함한 무역은 석유에서 벌어들이는 수입과 함께 말레이시아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¹⁰⁾ 무역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높은 경제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말레이시아로서는 자유무역이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선진국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에 의해서 결정되어왔다.

그러나 당시 국제경제적인 상황은 말레이시아에게 그리 유리하지 않았다. 주지하다시피,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라는 시대적 상황은 세계 각지에서 지역주의 내지 블록화, 보호무역 추세가 등장하던 시기이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유럽은 단일통화, 유럽중앙은행 창설을 골자로 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 었다. 말레이시아에게 유럽은 1990년 기준으로 15.3%의 말레이시아 수출품을 흡수하는, 일본만큼이나 중요한 수출시장이었다. 마찬가지로 북미대륙에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묶는 북미자유무역지대 (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미국 역시 1990년 기준으로 16.9%에 달하는 말레이시아 수출품을 수입하는 시장이었다. 유럽과 미국이 30%가 넘는 말레이시아의 수출품을 수입한 것이다. 대조적으로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은 말레이시아 수출의 9.9%만을 차지하고 있었다.¹¹⁾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무역의 대두를 제어하고 자유무역을 진작시키려

10) 1970년 말레이시아의 수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9%였으며 그 중 전자·전자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8%(수출 전체에서는 0.3%)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에 1995년 통계를 보면 수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늘어났으며, 전자·전자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출의 52%에 달했다. (Mohamed Ariff 1991: 14; IMF 2000: 39-40)를 바탕으로 계산.

11)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이 확대되면서 현재 말레이시아의 무역 대상국의 순위에는 많은 변동이 있다. 2005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은 여전히 말레이시아의 가장 큰 수출대상국(19%)이지만, 동아시아국가(홍콩포함)의 비중이 일본을 포함하여 1990년에는 25%에 지나지 않았지만 2005년에는 이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46%까지 성장했다.

는 우루과이라운드가 1990년 말 합의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협상은 난항을 겪었고, 합의 시한을 넘길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이런 국제경제상황에 대한 마하티르의 우려는 다음과 같은 그의 발언에 잘 나타나있다. 그는 1991년 아세안 장관회의(ASEAN Ministerial Meeting)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Mahathir 1991a).

열린 무역체제에 상당한 정도로 의존하고 있는 아세안과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는 새로운 보호무역의 물결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동아시아경제그룹이 제안된 것은 바로 열린 다자간 무역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아시아경제그룹은 우리가 공공선을 위해서 지역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에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동아시아경제그룹은 자유무역을 고수하고, 세계적인 블록화의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한편으로 아세안 내의 유대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동시에 이웃한 동북아시아까지 손을 내미는 시도였다. 유럽과 북미의 무역 블록화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적어도 그들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하기 위해 마하티르는 역시 무역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극동의 역동적인 국가들”까지 “친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Mahathir 1991b).¹²⁾

1990년대 초반 세계적으로 점증하는 지역주의와 보호무역에 따른 국가 경제적 위기,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마

12) 동남아 국가로서는 자신들에 비해서 훨씬 큰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동북아 지역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힘을 합칠 수 있는 좋은 대상이었을 것이다. 이런 전략적 고려 외에도 동남아 전반, 특히 말레이시아에 있어서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은 1990년대 들어서 중국으로 이전한 기존의 직접 투자 국가들을 대체할 새로 떠오르는 직접투자의 원천이었다. Nesadurai 2003: 84-85를 볼 것.

하티르로 하여금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김대중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1997-98년의 아시아 경제위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김대중은 동남아와 동북아의 국가들이 공통으로 처한 경제위기라는 지역적 위기의 극복, 그리고 그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국가적 위기의 극복을 위해 같은 운명에 처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 협력의 심화를 주장했다. 에반스(Evans 2005: 198)가 지적하는 것처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결정적으로 추동한 경제적 배경은 1985년의 플라자협약(Plaza Accord)과 1997년 아시아경제위기다. 플라자 협약이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적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면, 1997년 경제위기는 이런 긴밀한 관계를 확인시키고, 그 국가들로 하여금 구체적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결정적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잘 알려진 것이지만, 김대중 역시 국내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대통령직을 시작했다. 1997년 초 국내적으로 한보철강 부도 사태 등 경제위기를 예고하는 대기업의 부도사태가 이어지고, 그해 여름 태국, 인도네시아의 환율폭등과 주가급락의 영향을 받아 경제위기를 시작했다. 동남아발 쇼크를 받은 지 두 달여 만에 원화가치도 폭락하면서 본격적인 경제위기가 시작되었다. 그해 말 결국 한국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위기와 IMF 구제금융이라는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는 근소한 차로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런 경제위기 속에 당선된 김대중 후보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경제위기를 탈출하고 성장을 다시 확보하는 일이었다.¹³⁾

13) 객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의 대통령 취임 경축 만찬 연설을 보면, “대통령에 당선된 그날부터 외환위기의 극복과 IMF와의 힘겨운 협력체제 확립에 몰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취임 전부터 2개월간 실질적 대통령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대중

김대중은 일찍부터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담론을 통해 한국을 넘어선 다른 아시아 국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예를 들어 Kim 1994를 볼 것). 그러나 이런 민주주의의 확산이란 관심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모두 포괄하는 지역협력이란 틀로 확대·변화된 것은 역시 경제위기의 영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대중 스스로도 경제위기를 겪으며 동남아와 동북아 경제의 깊은 관계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영향이 피부로 실감되던 1998년 김대중은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김대중 1998a).

이 회의에 참석한 의미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동남아시아-동북아시아간의 어떤 차별도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동아시아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서로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만 해도 동남아시아-동북아시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동아시아 전체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것이 이번 회의에 세 나라가 초청받은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한 국가의 위기극복을 넘어서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경제위기를 다 같이 겪었던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적극적 호응을 이끌어냈다.¹⁴⁾ 이 인용문에서 보듯 김대중도 경제위기를 계기로 하여 동남아와 동북아간의 경제적 연계관계를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단순한 인식에 그치지 않고, 1997년 한·중·일 3국이 아세안

1998a).

14) 아시아 경제위기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주의를 고양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데, 경제위기로 인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동운명의 인식과 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의한 지역주의(Tay 2002)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위기에 대한 “분노”(Higgott 1998; Bowles 2002),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굴욕”(Kikuchi 2002)에 의한 지역주의의 심화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에 의해서 아세안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을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에 이른다. 199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 회의에서 김대중은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한다(김대중 1999).

역내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기타 영역에서 균형 잡힌 이익을 담보할 협력 조치들을 실행해야만 합니다... 나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제의 중장기적 진흥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 국가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이 지역에,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며, 동아시아의 이웃한 국가들에게 심대한 충격을 주었음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의 국가들 간에 더 긴밀한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유리하지 않은 국제 경제적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여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려 했던 마하티르의 의도나 국내적으로, 그리고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위기에 대처하고 새로운 경제적 도약의 발판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보았던 김대중이나 위기, 특히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경제성장과 발전을 지역협력을 통해 담보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해 보인다. 또 두 사람 모두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지역화, 블록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라는 측면에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고려한 것이 사실이다. 그 예로 김대중은 2001년 브루나이의 반다르 세리 베가완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서 동아시아정상회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세계 경제질서가 NAFTA, EU 등 지역을 기반으로 재편되는 추세 속에서 동아시아만 ‘아세안+3’라는 느슨한 형태를 유지해서는 세계의 중심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김대중 2001).

IV. 지도자의 사상적 배경과 서로 다른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성격

김대중과 마하티르 모두 국·내외적 원인에 의해 지역협력의 필요성이 부상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지역협력을 주창하고 발전시킨 점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인식시킨 객관적인 환경이 개별 지도자가 가진 주관적인 사상, 신념, 배경과 만나면 그 지역주의의 성격, 지역주의의 비전은 매우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김대중과 마하티르의 지역주의 비전의 차이점을 이 두 사람의 사상적 배경에 비추어 탐색해보려 한다.

말레이시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지역적 연대의 필요성에서 시작된 마하티르의 동아시아경제그룹 제안은 그 협력의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시 말하면 동아시아가 누구인가 또는 어디까지인가라는 물음을 대답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그의 반서구적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는다. 물론 동북아와 동남아시아를 하나의 동아시아라는 범주로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반서구적 민족주의의 일 필요는 없고 지역적 근접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수도 있지만, 마하티르의 발언에서 읽히는 그의 의도는 반서구적 민족주의를 꾸밈없이 드러내고 있다. 마하티르의 동아시아 지역범주 설정이 순수하게 지리적 근접성을 이유로 이루어졌다면, 여기에 호주나 뉴질랜드가 포함되지 않을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 오히려 순수한 경제적 목적이라면 호주와 뉴질랜드의 포함은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는 것일 것이다. 그렇지만, 마하티르의 관점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처음부터 전혀 협력을 위한 대상이 아니었다. 마하티르에게 있어서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그도 스스로 인정하듯이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들을지언정 지리적으로 가까운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등은 모두 유럽인종에 속하고 아시아는 유럽인종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Mahathir 2006:

13-14).

그는 유럽과 북미라는 서구 중심의 블록에 대항하기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단결과 협상력 제고를 외쳤다. 이런 아시아 국가들의 단결은 낮은 수준에서는 서구에 대한 집합적 협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마하티르는 일본의 유명한 보수주의자 이시하라(Ishihara)와의 공동 저작에서 동아시아경제그룹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Mahathir and Ishihara 1995: 44).

말레이시아 단독으로 유럽의 보호주의에 반발하여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 간다고 상상해보자. 우리의 목소리는 정말로 작다. 아무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 동아시아가 유럽에게 시장을 열라고 한다면, 유럽인들은 거대한 아시아라는 시장에 대한 접근을 생각해 보호주의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EAEC 제안의 이유다.

그러나 마하티르의 지역주의는 단순히 대 서구 협상력 제고에서 멈추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그가 제시한 동아시아경제그룹과 같은 제도를 통한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단결은 아시아에 위협이 되는 서구와의 대결에서 아시아가 생존하는 길이라고 인식되었다. 1991년 마하티르는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Mahathir 1991c).

우리가 이런 그룹을 가지지 못한다면, 아세안과 다른 모든 사람들은 유럽과 미국의 무역 블록의 손에 놀아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제약조건과 비무역 사안에 연계된 제약들이 아세안의 성장을 지체시킬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개발도상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서구 국가들에 대한 마하티르의 이런 대결적이고 배타적인 자세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과정에서 나온 특수한 산물은 아니며 오래 전부터 그의 세계관과 사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생각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마하티르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사상과 세계관이 지역협력을 필요로 하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나, 대결적이고 배타적인 지역주의로 발전했다.

반서구적인 마하티르의 독설은 짧게 거슬러 올라가도 그가 수상에 취임한 직후인 1980년대 초부터 나타난다. 단편적인 예로, 1986년에 출판된 그의 책, *The Challenge*는 “서양과 동양”(West and East)이라는 장에서 서구와 동양의 대결구도라는 식으로 형성된 그의 반서구적 민족주의 의식과 담론을 보여주고 있다. 마하티르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Mahathir 1986: 48).

동양과 서양의 경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서양은 동양이 그들에게 위협을 가할 정도로 강력해지고 발전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양이 비록 그들의 식민지를 하나씩 풀어주는 했지만, 다양한 방법과 수단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계속 보호하려 하고 있다.

이런 서구에 배타적인 마하티르의 생각은 “서구적인 것”에 대한 “동양적 또는 아시아적인 것”, 다시 말하면 “아시아만의, 아시아의 방법, 아시아의 길”에 대한 강조로 이어진다. 이런 아시아적인 것에 대한 강조는 마하티르와 이완유의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에도 반영이 되며 아시아 국가들만의 배타적인 지역주의, 지역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대한 하나의 정당성으로 제시되었다.¹⁵⁾

15) 마하티르는 아시아적 가치가 아시아에 보편적이라고 주장한다. 1995년 한 연설에서 그는 “이 세상으로 우리(Asia)가 나가는 우리만의 길을 밝혀줄 대부분의 아시아인들이 공통으로 가진 공동의 가치와 믿음이 있다”고 주장했다(Mahathir 1995). 여기서 마하티르는 자신이 동아시아라는 범주에 넣은 국가들이 모두 이 공통의 가치 즉,

김대중과 마하티르라는 두 인물의 담론과 비전이 직·간접적으로 만났던 순간은 그들의 정치적 역정에 있어서 두 번 있었다. 첫 번째는 1994년 마하티르, 이관유 등이 주도한 아시아적 가치의 옹호에 대해서 김대중이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을 때이며, 두 번째는 동남아와 동북아의 지도자로서 두 인물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이라는 장에서 만났을 때이다. 이 두 번째 만남에서 비록 똑같은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이야기 했지만, 이 두 지도자가 가지고 있던 지역협력에 관한 비전은 일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

서로 다른 정치철학과 세계관에서 비롯된 지역협력에 관한 비전은 두 사람이 상상하고 있는 지역주의의 성격을 전혀 다르게 만들고 있다. 아차리아(Amitav Acharya)는 마하티르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관한 비전이 비교적 부정적(negative)인 측면이 컸다면, 이와 대비되게 김대중의 동아시아 공동체에 관한 비전은 긍정적(positive)인 측면이 크다고 관찰하고 있다(Acharya 2006: 11). 비록 아차리아는 이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아시아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그것이 지역협력 나아가 통합의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시아적 가치” 또는 서구와 다른 “동양적인 것 또는 아시아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하티르의 동아시아 비전은 일견 동아시아 지역에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문화적, 사상적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보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 “아시아적 가치”의 기본적 성격, 특히 정치적 성격과 지향성에 있다. 쿠부텍(Khoo Boo Teik 2002: 52)의 자세한 지적이나 이미 1994년에 싱가포르의 이관유(Lee Kuan Yew)와 김대중 사이에 *Foreign Affairs*를 통해 일어났던 지상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시아적 가치”는 아시아의 비민주적 정치, 인권에 대한 경시, 인간 존엄성에 대한 무시를 전통과 문화의 상대성이라는 논리를 통해 합리화 하고 정당화 하는데 이용되어왔다. 요컨대, 마하티르에 의하면 동아시아라는 범주는 마하티르의 반서구적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은 아시아적 가치라는 비민주적 혹은 권위주의적 정치를 옹호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담론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규정된 공동체에서는 엘리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정의된 공동체 전체의 이익·대부분의 경우 경제발전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압도하고, 권위주의적 정치가 경제발전이란 공동체 전체의 이익 또는 아시아의 문화적 특수성이란 이름으로 합리화 될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마하티르의 반서구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동아시아 지역의 정체성은 보다 방어적이며 수세적이고 외부에 대해 “공동의 취약성과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 배타적일 수 있는 반면, 김대중의 보다 긍정적인 동아시아 지역 협력과 통합에 관한 비전은 상대적으로 보다 내적 자신감과 보편성에 바탕을 둔 특징을 보이며 따라서 외부에 대해서 보다 유연할 수 있다.

이런 차별성을 확인해 나가는 실마리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관한 구체적 언급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미 1994년 아시아적 가치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논쟁에서부터 확인될 수 있다. 이 Foreign Affairs를 통한 논쟁의 핵심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한가라는 것이다. 마하티르와 함께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의 강력한 옹호자인 이관유는 이 저널에 게재된 파리드 자카리아(Fareed Zakaria)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는 서구와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서구에서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아시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Zakaria 1994). 김대중은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한다. 그는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하게 아시아의 권위주의적 지도자-이관유 역시 권위주의적 지도자로 그의 글에 명시되어 있다-들이 자신들의 비민주적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김대중은 아시아의 전통에서 서구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민주주의의 전통을 찾아내고 있다. 이런 아시아적 민주주의의 전통을 놓고 볼 때 민주주의라는 가치는 서구의 가치라기보다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¹⁶⁾

16) 그에 의하면 로크(John Locke)보다 2천년이나 앞선 맹자의 사상에 “왕도정치”와 같은 개념이 있었고, 그에 따르면 선정을 베풀지 않는 왕을 하늘의 이름으로 백성들이 몰아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오래된 중국의 사상으로부터 보다 최근의 동학사상 즉, “인간이 곧 하늘”이고 “사람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라는 사상에 까지 김대중은 이미 아시아의 전통과 가치 속에 민주주의적 생각이 오래전부터 존재했음을 일깨운다. 더불어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현재의 국가공무원 채용방식과

김대중은 1960년대 후반부터 군사독재 하에서 한국 야당의 주요 지도자로 군사정부와 정치적 경쟁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군사독재와 자신을 차별화하기 위해 민주주의, 더 자세히 말하면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워 왔고, 후일에는 이런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옹호가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앞서 말한 아차리아의 논의, 그리고 마하티르와의 비교와 관련하여 여기서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주장했던 민주주의보다는 ‘가치의 보편성’에 대한 믿음이다. 김대중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강조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필요성이란 환경을 만나 마하티르의 지역협력에서 보이는 서구와 대결적인, 그리고 서구를 철저히 제외하려는 배타적인 지역주의와는 다른 보다 수렴적이고 개방적인 지역주의의 모습을 보인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개방적 지역주의는 엄격한 의미에서 폐쇄적 지역주의(closed regionalism)와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구분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지닌다.¹⁷⁾ 물론 마하티르의 경우 동아시아경제그룹과 같은 경우 스스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매우 폐쇄적인 지역주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 다른 무엇보다도 외부에 회원자격을 철저히 봉쇄하며 외부, 특히 서구와 대결적인 성격을 보인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¹⁸⁾ 그에 비해서 보편적 가치

유사한 과거제도, 지방자치의 성격을 가지는 중국의 군현제도, 왕의 권한과 고관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정부기관 등 아시아적 전통에 민주적 요소가 있었음을 주장한다(Kim 1994).

17) 일반적으로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라 하면,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 내적인 장애물을 모두 제거하여 완전히 자유로운 경제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외부에 대해서는 기존의 장벽을 강화하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Gamble and Payne 1996:251). 이에 반해서 폐쇄적 지역주의(closed regionalism)는 과거 유럽이 경제적 통합을 심화하고 있을 때 내적으로만 자유화 되고 외부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유럽요새(Fortress Europe)를 우려하던 시각에서부터 최근에는 마하티르의 동아시아경제그룹처럼 멤버십이나 자유화에 있어 배타적인 지역주의를 칭한다(Sum 1996: 225).

18) 이런 마하티르의 생각은 동아시아경제그룹 제안 당시나 최근이나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 가장 최근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포함된 것을 놓고 원색적인 비난을 한 바 있다. 마하티르는 1차 동아시아정상회의를 “East Asia

에 대한 존중이라는 배경과 지역주의가 만난 김대중의 지역주의에서는 이런 대결적이고, 배타적, 폐쇄적인 성격이 훨씬 줄어든다.

앞의 유사점에서 언급했듯이, 김대중과 마하티르의 지역주의는 지역적 범주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마하티르의 경우에는 이 지역범주가 절대적인 것이며, 불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의 경우 비록 마하티르의 동아시아 지역범주를 계승하기는 했지만, 협력의 대상에서 마하티르처럼 철저하게 서구 국가들을 배제하는, 또는 동아시아와 서구를 대결관계에 놓는 담론을 전개한 적이 없다. 또 마하티르에게 있어서 지역협력에 따른 열매는 배타적으로 지역 내에 속한 국가들과 사람들만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의 지역주의 비전에 있어서는 지역협력의 결과로 생기는 이익이 반드시 지역 국가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도록 제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김대중의 경우 지역협력에 대한 강조는 지역의 이익을 넘어서 항상 인류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이익으로 확대되곤 한다. 이런 주장은 마하티르의 경우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의 경우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이 동아시아 국가들과 지역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주장은 하지만, 이를 전 세계 차원으로 또는 인류차원으로 확대하는 담론을 보여주지 않는다.

1999년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연설은 김대중이 이런 주장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이 연설에서 그는(김대중 1999), “나는 동아시아의 13개 국가간의 협력을 통한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믿습니다. 나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높이 삽니다. 이런 잠재력과 다양성에 기초한 우리가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면, 이는

Australasian Summit”이라고 비꼬면서 “호주의 관점은 동아시아의 견해가 아닌 미국의 견해를 대변한다.” 그리고 “나는 이번 정상회의의 목적이 (호주의 포함으로 인해) 달성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Ng 2005).

우리 지역 내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발전에도 크게 공헌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그는 퇴임 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2004년 제 2차 동아시아포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김대중 2004).

지금 세계는 12억 명이 하루 1불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7억 명이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빈곤은 인도적으로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에 신음할 때 우리는 사회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불만과 분노가 들끓는 곳에 테러와 범죄는 번창해 나갈 터전을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는 번영된 동아시아를 지향합니다. 동시에 모든 동아시아인이 생활의 안정과 이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여기서 김대중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인용에서와 같이 동아시아의 발전에 중국에서는 전 세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 여기서 김대중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시아의 발전이 평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결국에는 테러와 전쟁 등의 불안요소가 없는 세계를 건설하는데 공헌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대중의 제안으로 빛을 본 동아시아비전그룹은 단순한 동아시아 국가 간의 지역협력이란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던 동아시아경제그룹과 아세안+3 체제에 보다 구체적인, 그리고 보다 큰 목표인 국가 간 공동체 건설이라는 과제를 던져 준 동시에 단순한 발전연대를 넘어서 보다 큰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¹⁹⁾ 동아시아비전

19)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지역협력에 관한 비전과 동아시아비전그룹이 제시한 동아시아공동체의 청사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 의심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비전그룹이나 동아시아연구그룹이 한국, 다시 말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그 활동과정에서 의심할 여지없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따라서 이 그룹들에 참여한 한국측 인사들에 의해

그룹의 보고서는 “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하여 - 평화, 번영 그리고 진보의 공동체”(Towards An East Asia Community - Region of Peace, Prosperity and Progress) 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번영이란 경제적 발전의 측면은 이전의 동아시아경제그룹의 비전과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외의 두 가지 측면 즉, 평화와 진보라는 측면은 동아시아공동체라는 비전이 이전에 비해서 더 발전된 것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소속국가들의 경제적 이익과 대외적 협상력을 집합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보다 장기적이고 원대한 계획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동아시아비전그룹 보고서는 동아시아공동체가 “국가들의 지역”에서 탈피하여 “공통의 도전, 열망 그리고 운명을 가진 참된 지역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EAVG Report 2001: 6). 동아시아비전그룹이 바라보고 있는 이런 동아시아공동체의 지향점은 마하티르의 단순한 개별 민족국가를 위한 발전연대적인 측면, 그리고 유럽연합과 NAFTA에 대항한 협상력의 제고를 위한 도구적 지역협력이라는 도식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이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말레이시아 전 총리 마하티르와 한국의 전 대통령 김대중이 지역협력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비교해 보았다. 이 연구는 각 지역 지도자의 지역주의에 대한 비전은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촉발시키는 특수한 위기 상황에 개별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또는 신념이란 것이 더 해져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서 당시 대통령이자 그룹의 제안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사가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김대중과 마하티르의 지역협력에 대한 강조는 공통적으로 특수한 국가 또는 지역적 위기의 상황을 반영한다. 마하티르의 경우 1990년대 초반의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보호무역과 지역주의가 형성한 위기의식에 자극을 받아 동아시아경제그룹을 주창했다. 보호무역과 다른 지역에서 지역주의의 증가는 세계시장과 밀접히 관련을 맺으며 편입되어 있던 말레이시아의 경제뿐만 아니라 수출에 의존한 동아시아 지역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었다. 김대중 역시 국내적으로 아시아 경제위기가 가져온 국내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집권했고,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해 공통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연관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두 역내 지도자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강조는 이런 위기 상황에 의해 촉발되었다.

두 지도자의 동아시아 범주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관한 생각은 그들의 신념과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차이를 보인다. 마하티르의 지역협력에 관한 비전은 위기의 상황을 맞아 “분노의 정치”(politics of resentment)로 발전했고 그 결과는 배타적으로 동아시아인에 의한 동아시아인과 동아시아 국가의 이익을 위한 지역주의를 가져왔다. 이런 성격이 나타나게 된 것은 마하티르가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서구에 대한 불신과 대결의식의 반영 때문이다. 반면에 김대중의 경우 마하티르 보다는 개방적이고 덜 배타적인 성격의 지역주의를 주장했다. 물론 이 배타성과 비배타성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교해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김대중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관한 비전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는 동아시아 지역 협력이 역내 국가와 동아시아 지역에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발전은 전 세계적인 발전과 인류의 평화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김대중과 마하티르가 이런 생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김대

중의 세계관 속에 마하티르가 주장하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에서 드러나는 아시아 지역의 특수성과 예외성에 대한 강조가 약하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 보편주의에 대한 강조가 보다 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세계관과 인식이 덜 배타적이며 덜 대결적인 지역주의를 가져왔다.

이런 역내 지도자의 비전과 현재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실천을 놓고 볼 때 현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마하티르의 동아시아경제그룹보다 덜 배타적이며 덜 폐쇄적인 성격을 보이는 것은 최초 마하티르의 배타적 지역주의가 김대중의 보다 보편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지역주의를 만난 결과라고 보인다. 물론 현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덜 배타적인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한 정치, 경제, 안보적 지분을 가지는 미국이 배타적 지역주의를 경계하는 것과 같은 변수로부터, 동아시아 경제가 세계경제에 이미 깊숙이 편입되어 있으므로 배타적 지역주의는 동아시아 지역에 이익이라기보다는 손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와 같은 구조적 원인까지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하지만 지역협력을 주도하는 역내 지도자의 지역협력에 관한 비전 역시 현 지역주의 성향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가네산(Ganesan 2000)의 지적처럼 동아시아에 건설적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을 가진 역내 리더십이 필요하다.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은 위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급진전 되었으나 아시아 경제위기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난 지금 그 위기에 대한 기억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역협력과 통합의 논의를 촉발시켰던 정치적 동력도 떨어지고 있다. 현재의 지지부진한 동아시아 지역 통합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협력과 통합의 진전을 위해서 또 다른 지역 내 위기가 지역협력의 촉매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협력과 통합의 새로운 추진력은 역내 리더십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에반스(Evans 2005: 196)의 말처럼 “명확한 목표, 공통의 비전, 그리고 강력한 정치적 지지”(a clear objective, a shared vision and strong political support)를 확보한 역내 리더십의 출현이 향후 성공적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통합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동아시아공동체, 아세안+3, 지역주의, 마하티르 모하마드, 김대중, 동아시아 지역협력, 동아시아경제그룹

참고문헌

- 김대중. 1998a. 대통령 취임 경축 만찬 연설. 서울. 2월 25일.
- 김대중. 1998b. 베트남 방문 및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귀국 기자회견. 서울. 12월 17일.
- 김대중. 1999. 아세안+3 정상회의 연설. 마닐라, 필리핀. 11월 27일.
- 김대중. 2001. 아세안+3 정상회의 연설. 반다르 세리 베가완, 브루나이. 11월 5일.
- 김대중. 2002.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를 위한 만찬 연설. 서울. 5월 23일.
- 김대중. 2004. 제2차 동아시아포럼(EAF) 총회 연설문.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12월 6일.
- 배공찬. 2005.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개최 전망 및 과제』.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 백영서 외. 2005.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서울: 창비.

- Acharya, Amitav. 2006. "The Imagined Community of East Asia." paper presented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rganised by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under the title of "Global East Asia and the future of Two Koreas". Seoul, Korea. 12-13 May.
- Alagappa, Muthiah. 1995. *Political Legitimacy in Southeast Asia: The Quest for Moral Author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Bowles, Paul. 2002. "Asia's Post-Crisis Regionalism: Bringing the State Back in, Keeping the (United) States Out."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9(2): 230-256.
- EASG Report. 2002. "Final Report of the East Asia Study Group," presented to ASEAN+3 Summit, 4 November 2002. Phnom Penh, Cambodia. (<http://www.aseansec.org/viewpdf.asp?file=/pdf/easg.pdf>)
- EAVG Report. 2001. "Towards An East Asian Community - Region of Peace, Prosperity and Progress". (http://www.aseansec.org/pdf/east_asia_vision.pdf)
- Evans, Paul. 2005. "Between Regionalism and Regionalization: Policy Networks and the Nascent East Asian Institutional Identity" In T. J. Pempel (ed.), *Remapping East Asia: The Construction of a Region*. pp. 195-215.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Gamble, Andrew and Anthony Payne. 1996. "Conclusion The New Regionalism" In Andrew Gamble and Anthony Payne (eds.), *Regionalism and World Order*. pp. 247-264. Houndsmill: McMillan Press.
- Ganesan, N. 2000. "ASEAN's Relations with Major External Powers."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2(2): 258-278.
- He, Baogang. 2004. "East Asian Ideas of Regionalism: a Normative Critique."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8(1): 105-125.

- Higgott, Richard. 1998. "The Asian Economic Crisis: A Study in the Politics of Resentment" *New Political Economy* 3(3).
- Holsti, K. J. 1995. *International Politics: A Framework for Analysi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IMF. 2000. *IMF Staff Country Report No. 00/130 Malaysia Statistical Appendix*. Washington D.C.: IMF.
- Khoo, Boo Teik. 2002. "Nationalism, Capitalism and Asian Values." In Khoo Boo Teik and Francis Loh Kok Wah (eds.), *Democracy in Malaysia: Discourses and Practices*. pp. 51-73. Richmond: Curzon Press.
- Kikuchi, Tsutomu. 2002. "East Asian Regionalism: A Look at the ASEAN+Three Framework" *Japan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16(1).
- Kim, Dae Jung. 1994. "Is Culture Destiny? The Myth of Asia's Anti-Democratic Values." *Foreign Affairs* 73(6).
- Mahathir Mohamad and Ishihara Shintaro. 1995. *The Voice of Asia: Two Leaders Discuss the Coming Century*. Tokyo: Kodansha International.
- Mahathir Mohamad. 1986. *The Challenge*. Kuala Lumpur: Pelanduk Publication.
- Mahathir Mohamad. 1991a. "ASEAN: Good Return of Growth and Stability." Speech delivered at the 24th ASEAN Ministerial Meeting. Kuala Lumpur, Malaysia. 19 July.
- Mahathir Mohamad. 1991b. "ASEAN in the 1990s and Beyond: The Case for Expanded ASEAN-based Regional Cooperation." a speech delivered at The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New York. 26 September.
- Mahathir Mohamad. 1991c. Speech at the Meeting of ASEAN Economic Ministers, Kuala Lumpur, Malaysia. 7 October.

- Mahathir Mohamad. 1995. Speech at Senator House, Cambridge University, 15 March.
- Mahathir Mohamad. 2006. "Let Asian Build Their Own Future Regionalism," *Global Asia* 1(1): 13-15.
- Mohamed Ariff. 1991. *The Malaysian Economy: Pacific Connections*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 Nesadurai, Helen. 2003. *Domestic Politics and Regionalism: The ASEAN Free Trade Area*. London: Routledge.
- Ng, Pauline. 2005. "East Asia Summit Doomed." *Business Times (Singapore)*, December 8.
- Ramcharan, Robin. 2000. "ASEAN and Non-Interference: Principle Maintained,"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2(1): 60-89.
- Sum, Ngai-Ling. 1996. "The NICs and Competing Strategies of East Asian Regionalism." In Andrew Gamble and Anthony Payne (eds.), *Regionalism and World Order*. pp. 207-245. Houndsmill: McMillan Press.
- Tay, Simon. 2002. "ASEAN Plus 3: Challenges and Cautions about a New Regionalism." In Mohamed Jawhar Hassan, Stephen Leong and Vincent Lim (eds.), *Asia Pacific Securit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the Twenty-first Century*. pp. 99-117. Kuala Lumpur: ISIS Malaysia.
- Terada, Takahashi. 2003. "Constructing an 'East Asian' Concept and Growing Regional Identity: From EAEC to ASEAN+3." *The Pacific Affairs* 16(2): 251-277.
- Vatikiotis, Michael. 1991. "Asean leaders mull over grouping's future: Time to rethink."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51(12). March 21.
- Zakaria, Fareed. 1994. "A Conversation with Lee Kuan Yew." *Foreign Affairs* 73(2).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Visions for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of Mahathir and Kim Dae-Jung

Lee Jaehyon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nalyses two different visions of regionalism: one by Mahathir Mohamad, former Malaysian Prime Minister and the other one by Kim Dae-Jung, former Korean President. These two regional leaders had unrivaled impacts on the development of East Asian regionalism. Studies on the vision of regional leaders, however, is hard to be found and thus, this study is an experimental attempt to fill such a gap. Kim Dae-Jung and Mahathir share common geographical boundary of East Asia. More importantly,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was to tackle national and regional crises for both Mahathir and Kim. Mahathir, in early 1990s, had to ensure Malaysian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facing the rising regionalism in other regions and protectionism. Similarly, Kim had to cope with Asian Financial Crisis domestically and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was a tool to rekindle domestic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after the crisis. On the other hand, Mahathir's vision for regional cooperation was heavily influenced by his long-standing anti-Western nationalism, thus resulting in a closed and exclusive regional cooperation which only benefits East Asian people and countries. On the

contrary, Kim has long been a strong advocate of universal values of democracy against military regime in Korea. Thus, Kim's belief in universalism brought about a vision of open regional cooperation, based on universal values, that would do a good not only for East Asia but also for whole human being.

Keywords: East Asia Community, ASEAN+3, Regionalism, Mahathir Mohamad, Kim Dae-Jung,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East Asian Economic Group